

10월의 광주·전남은 ‘꿀잼도시’… 가을축제 ‘풍성’

광주 11개, 전남 32개 축제·행사
음식·음악·힐링·가을꽃 등 소재
한달간 지역 전체 축제로 물들어
시, “10월 대표 관광지 만들겠다”

늦더위가 물러가고 가을 정취가 짙어지는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시작으로 축제의 계절이 돌아온 광주·전남 곳곳에는 맛과 멋 그리고 흥을 한번에 사로잡는 축제와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해 남도의 맛을 알리는 행사부터 세계의 음식들을 한데 모아 문화를 교류하는 야시장까지, 각양각색의 행사가 국내외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예정이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광주에서 11개, 전남에서는 32개의 축제·야외 문화행사 등이 예정돼 있다.

먼저 다음달 2일부터 닷새간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꼽히는 충장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21년째를 맞는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충·장·발·光 다시 타오른 열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불꽃

과 열정, 대동을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충장축제는 주 무대가 5·18 민주광장이 아닌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되면서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무대가 진행될 예정이라 큰 기대를 모은다.

특히 5일간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되면서 규모면에서도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역 축제의 한계를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덧 세번째를 맞는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도 충장축제 기간에 같이 진행되면서 광주의 축제 분위기를 북돋는다.

국내·외 58개국 781팀이 지원해 16개국 32팀이 본선에 진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가을의 광주 하면 또 손꼽히는 ‘제9회 광주서창역새축제’도 17일 개막한다. 무대 중심으로 진행됐던 행사가 역세길 4km 구간 전체를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모든 공간이 포토존이 될 전망이다.

사흘간 진행되는 역사축제는 사전 예약을 통해 회차별 200명 내외의 가족들에게

와인과 핑거푸드를 즐길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을 운영하고, 전국 인플루언서들의 뇌휴식 대회인 ‘국제명때리기대회’, ‘전국 역사·노을 사진공모전’이 열리는 등 축제 기간 내내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분위기와 여유없이 짝 찬 행사들을 선물한다.

10월 26일에는 커피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인 ‘제4회 동명커피산책’이 열린다.

‘NEW COFFEE, NEW CULTURE’를 주제로 열리는 커피산책은 동명동의 차별화된 감성과 공간적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그니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국 대표 커피 축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수년간 전국의 젊은 세대에겐 인 증된 동명동만의 감성을 지닌 카페거리에서 바리스타가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직접 내린 특별한 커피를 선보이며, 시민들은 취향에 맞는 커피에 투표, 최고의 커피를 선정하기도 하며, 축제 때마다 조기 예약 완료돼 이른바 ‘오픈 런’ 이슈를 만들었던 동명동 카페 투어 프로그램 ‘노런저스트 워크’는 올해도 다시 만날 수 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동명 커피 다이닝’은 동명동 바리스타만의 커피 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동명 카페거리의 문화를 하나의 코스로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져 눈길을 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따라 전남지역도 10월이 되면 더 화려해진다.

먼저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전남 대표 가을 축제가 열린다.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가을 꽃을 중심으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지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황룡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수십억 송이의 다채로운 가을꽃이 매력적이다. 축제장은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다’는 의미를 담아 흥선대원군이 남긴 ‘문 불여장성(文不如長城)’ 문구에서 착안해 문화존, 불먹존, 여유존, 장성존, 성장존 등 5개 구역으로 꾸며지며 꽃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플라워터널 인근 용작교에는 야간조명이 설치돼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또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관광지 일원에서 명량대첩 축제가 열린다. 전남도·진도군·해남군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역사적인 명량대

첩 승전일(음력 9월16일)과 축제시기를 맞물려 치러진다.

16번째를 맞는 명량대첩축제는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과 전라도 어민이 1597년 9월 16일 울돌목에서 일본 수군을 물리친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명량해전을 기념하는 호국역사문화축제다. 세계대전 사상 유래가 없는 대전승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각종 체험행사와 학술세미나, 이순신 사료전시회, 해상전투 재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10월에만 무려 32개의 축제가 개최되는 전남은 이외에도 한달간 ‘목포 항구축제’, ‘함평 대한민국향대전’ 등 남도 전체가 온통 축제 한마당으로 물들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축제를 앞두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으니 큰 기대를 갖고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가을 축제와 행사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축제를 통해 광주를 10월의 축제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게끔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70대 노부부 ‘묻지마 살인’ 한 40대… 징역 20년

아파트 복도에서 70대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한 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9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귀가 중이던 B(71)씨와 C(72)씨 부부를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아파트 주민 D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 30분께 나체 상태로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행동을 벌이며 아파트를 배회하던 A씨는 14층에서 D씨를 먼저 폭행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귀가하던 B씨 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했다.

이후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약을 5일전부터 복용하지 않아 일부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건강한 남성을 상대로는 범행을 벌이지 않고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벌였다”며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29일 오전 광주 동구 운림동 무등산국립공원 내 중심사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된다.

29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정보(얼굴, 성명, 나이 등)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2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에서 길을 가던 B(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크게 다친 B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행방을 쫓았으며,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의 인상착의를 알아보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인근에서 발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흥기를 쫓겨 밖으로 나와 길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실질심사 전 A씨는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로, 어떻게 범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범행을 부인하는 A씨는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민현기 기자**

문화유산 잿더미 될 뻔… 무등산 중심사 화재

인명·문화유산·보물 피해 없어
산행 나선 등산객들 대피 소동
우수관 용접 중 불꽃 튀어 화재

29일 휴일을 맞아 무등산에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등산객들이 몰린 가운데 광주 대표 사찰인 중심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등산로 일부가 통제되고 등산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주 동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 운림동 중심사 내 공양간(식당)과 행원당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중장비와 소방헬기까지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12시40분께 큰 불을 잡았다. 하지만 화재 발생 건물이 목조 기와 건물이어서 기와장을 뜯어내며 불을 꺼야 해 완전까지 시간이 지체됐다.

이 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과 행원당으로 쓰이던 건물 1개 동(연면적 165㎡)이 전소됐다.

불이 난 지점과 인근 건물들인 지장전과 대웅전 등이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로 지어졌고, 주변 나무 한 곳으로도 불이 옮겨붙었다더라면 대형 화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었으나 다행히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불이 번지지 않았다.

중심사가 보유하고 있는 철조비로자나 불좌상이나 오백전, 석조보살입상 등 문화유산·보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화재 보험에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 당국은 당시 공양간에서 이뤄지고 있던 빗물받이 용접 공사 도중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튀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휴일을 맞아 가을 산행에 나선 등산객

들은 황급히 대피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등산이 취미지만 유독 이번 여름 폭염이 극심해 산을 오르지 못해 설레는 가슴으로 무등산을 찾은 전현희(29)씨는 “아침부터 등산 동아리 모임 단체 대화방에 드디어 등산 간다고 자랑까지 했는데, 산에 오르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개 너머로 새까만 연기와 불길 보여 공포감에 휩싸였다”며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다”고 한숨을 돌렸다.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한 절로 1984년 광주시 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된 중심사는 860년 통일신라 말기 사자산문을 열었던 철길선사 도유이 창건한 이후 여러 차례 화마에 휘말렸지만 여전히 굳건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